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이기원, 한은숙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chin2002@hanmail.net

백신에게 듣는다<열한번째>

백련사 일운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육바라밀 실천 수행
- 일시 : 불기2548(2004)년 1월 17일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일운스님 약력

- ▶ 북 묘향산 보현사에 출가
- ▶ 삼척 흥복사 주지
- ▶ 설악산 신흥사 주지
- ▶ 간성 건봉사 주지
- ▶ 칠보사 주지



삼보사찰순례

- 일 시 : 2004년 1월 31일(토)정오 12시 ~ 2월 1일 (1박2일)
- 장 소 : 경남 양산 통도사, 경남 합천 해인사, 전남 순천 송광사
- 출발지 : 수원포교당 입구 매항다리 앞 정오12시
- 동참금 : 5만원
(숙식비/여행자보험료/간식/시찰입장료 포함)

1 월 호



수미산

불기 2548년 새 아침을 열며...

진 철 희 / 경기불교문화원장

유 난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계미년이 가고 이제 희망차게 다시 시작 하는 갑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경기불교문화원 가족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여 올해에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경기불교문화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

새해 첫 날 아침에 저는 새로운 정신으로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봅니다. 경기불교문화원 발전에 초석을 쌓으려는 임원들에게 남다른 슬기와 용기를 북돋아 준 문화원 가족여분들에게 새삼 뜨거운 존경과 감동을 느낍니다.

백인에게 듣는다 큰스님초청 열린 법회를 비롯하여, 무에서 창간한 경기불교회보,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하는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사찰환경답사 등 이 모든 행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임원들과 회원님들의 정성과 땀방울의 결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쏟아 부었던 땀방울은 지난해 우리 모두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어 보리의 나무를 가꾸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보리수 그늘 밑에서 풍요로이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문화원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해의 뉴스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소식들이 너무나 자주 들렸습니다. 그 소식들을 살펴보면 조금 참지 못 해서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 하여 큰 참변을 부른 경우들이 많았지요.

밝고 아름다운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과도한 집착과 욕망을 털어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옆자리를 비워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한 몸이 청청하면 법계가 청정하고 내 한몸이 혼탁하면 법계가 혼탁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대 지혜 금강보검만이 불의와 부정 타락과 부패를 대광명의 천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보다 철저한 수행과 뼈를 깎는 참회로 인간의 자성을 재발견 해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갑신년 올 한 해를 희망과 용기를 갖고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보람찬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되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불기2548년 갑신년 새해아침에..

원장 진철희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불고기초교리 개강(2월개강)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강사 : 전문법사

기간 : 14주(50,000원)



통권 6호
수미산

원숭이 왕

권 중 서 / 조계종 포교사

부처님의 말씀 중 본생경(本生經)은 산스크리트語 자타카(Jataka)의 한역으로 「태어난 그 때의 일」의 뜻으로 불교에서는 「이승에 태어나기까지의 전생(前生) 이야기」라는 독특한 뜻으로 쓰이고 있어,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서 보살로 수많은 생을 거듭하는 사이에 천인, 국왕, 대신, 장자, 서민, 혹은 코끼리, 원숭이, 공작, 토끼, 물고기 등 여러 가지의 동물의 생을 받아 여러 가지 善行과 功德을 쌓은 전생이야기를 가리킨다.



甲申年 올해는 원숭이의 해로 원숭이는 무리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동물로 지도력이 실종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원숭이의 왕으로 지도력을 발휘해 500의 무리를 안전하게 지키셨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글대장경 육도집경에 있는 글을 옮겨 적는다.

" 예전에 보살이 원숭이의 왕이 되어 오백의 원숭이가 따랐다. 그 때 마르고 가물어서 여러 가지 과실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 나라의 왕성은 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물로 막혀 있었다. 원숭이의 왕이 그 무리들을 거느리고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실을 먹으니 과수원 지기가 왕에게 알렸다. 왕이 엄밀하게 지키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원숭이의 왕이 알고 슬퍼서 말하였다. 「내가 무리의 어른이 되었으니 무리들의 화와 복이 내게 달렸는데 과실을 구하여 목숨을 건지려다가 도리어 무리를 그르쳤도다.」하고 그 무리들에게 칙을 구해오라고 단단하게 타일렀다. 무리들이 칙을 구해 가지고 돌아오니 그것을 연하여 이어서 그 한 끝을 큰 나뭇가지에 매고 또 한 끝은 원숭이 왕 자신의 허리에 매고 나무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 저쪽 나뭇가지를 휘어잡았으나 칙이 짧았기 때문에 몸뚱이가 늘어져 매달려 있었다.

그 무리들에게 재촉하여 빨리 칙을 타고 건너가게 하였다. 무리들이 다 지나가고 나자 두 겨드랑이가 찢어지면서 물가의 언덕에 떨어져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국왕이 새벽에 나와서 순시하다가 큰 원숭이를 잡으니 그것이 능히 사람의 말을 하였다.

머리를 두드리고 스스로 진술하기를,

「아수가 삶을 도모하여 나라의 혜택을 믿고 왔다가 때 마침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사오매 나라의 과원을 침범하였습니다. 이 죄는 나에게 있사오니 그 나머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레 같은 몸뚱이의 썩어질 살이오나 가히 왕에게 바치면 하루 아침의 반찬이 될까하옵니다.」하였다.

왕이 우러르면서 탄식하였다. 「짐승의 우두머리도 몸을 죽이어서 무리들을 건지니 옛 성현의 넓은 어짐이 있거늘 나는 사람의 임금으로서 어찌 능히 이만도 못하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명령하여 그 묶은 것을 풀고 안전한 땅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단단히 일러 원숭이가 먹는 것을 내버려 둘 것과 만약 원숭이를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도적과 같은 죄로 다스리겠다고 하였다."

지금도 원숭이 왕을 우러러 강화도 전등사 대웅전 처마를 받히고 있는 4마리의 원숭이를 볼 수 있다. 경전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편수의 돈을 때어 먹은 술집 작부"라 하여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건드리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대웅전 안에 계신 전생에 원숭이의 왕이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없는 공경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나라에 큰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원숭이 왕 처럼 지역구민의 어려움을 몸소 살피고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잘 선택하여야 힘찬 갑신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처럼 법대로 한다면 대쪽 잣대를 재면서 멋대로 차 떼기로 돈 굶어모아 써버리고, 누구처럼 차 떼기의 1/10 이하면 죄 없다는 맞고 맞고요 식의 지도자는 정말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큰 도적 신창○이가 부잣집에 침입하여 그 집 보물의 1/10 만 훔치면 정말 죄가 없는 것인가?

갑신년 아침에 우리는 원숭이의 왕의 교훈을 깊이 새겨 올 한해 국운은 번창하고 국가는 부강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길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기원한다.

권중서



경전강좌 (금강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사 : 수산스님
기간 : 3개월 과정(4주 20,000원)

요가반

매주 월 /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강사 : 오후 - 최두남
기간 : 3개월 과정(90,000원)



법 문

남북통일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백지상태에서 다시 접근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교육,
자동차에 빗대자면 부속품들의 고장으로
이대로 가다간 예측불허의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의식,
문화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충남 아산 인취사 주지
헤민스님



상신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상신은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었고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신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이 간니에게—
헤민

불교라는 것은 지식탐구와는 다릅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입니다.
가슴으로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불교적 접근방법이죠. 왜냐하면
재가불자나 수도하는 승려나 모두다 부처님, 즉 성인의 말씀과 가르침, 그 행적을 따
르면서 여러분이 성인의 길을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바가 전혀 없어도 아무 배경이 없어도 돈, 명예, 권력이 없고 심지어 사지가 없아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
습니다. 성인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접근하다보니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이 알
아야하고 이렇게 외형을 갖추다보니까 내실이 충실하지 못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도저도 못하며 미국의 제국주의를 피부로 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는 또 어떻습니까. 중국의 패권주의는 어떻습니까.

저는 남북통일의 열쇠가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와 동반자이면서 천적관계입니다. 또한 중국은 옛 우리
땅을 몽땅 삼키고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중국의 것으로 왜곡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매우 심각합니다. 언론이 얘기하고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이념적 대립이나 갈등은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지구상에는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중주국인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공산주의는 존재하
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농락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남북관계
는 이념적 대립이나 갈등은 접어버리고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백지상태에서 다시 접근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교육, 자동차에 빗대자면 부속품들의
고장으로 이대로 가다간 예측불허의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의식,
문화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38선이 무너지고 땅덩어리가 하나가 되는 것만이 통일은 아닙니다.

만약 아무 대안 없이 남북통일을 했다 가는 남북한 국민들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절대로 정치적이나 지정학적 통일만 이루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대륙민족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즉 반도통일이 아닌 과거의 잃어버린 모든 땅들을 다 찾기 위한 것이 남북통일의 첫 단계 작업입니다. 남북한 철
천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대륙의 피가 내 심장을 고동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자신의 염불을 자기 귀로 들어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끄러운 시내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염불소리를 자기 귀로 듣
게 되면 깊은 산중에 있는 것과 같이 홀연히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계**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세무사

전 종 환

TEL. 031)246-1177
FAX. 031)257-5533



법 문

근·학
신·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름답게 보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갖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포교사님들이 불교를 배워서
이리 좋은 것을 나 혼자 알기보다
주위 분들과 함께 수행하고 불교문화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불암사 주지
일면스님

法要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眞心祝賀
光東學校理事長
黃日面

지금은 제가 절에 들어온 지 43년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 “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라든가 큰스님의 말씀으로, 도를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것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님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만 제가 어릴 때 절에 들어와서 한창 자랄 나이에 먹지 못해 겉은 멀쩡해도 속이 허했습니다. 82년도에 만성간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때만해도 건강하고 조금 아프다가 마는가 싶어서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갔습니다. 우연히 어떤 신도님의 제의로 종합진찰을 받아보니 간 경화였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스님은 살아도 2개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다행히 뇌사 하신 분의 간 기증으로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노릇한 40년 동안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통증이 오면 아무생각도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약사여래부처님을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천수경을 외워도 통증이 낫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귀찮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통증을 멈출 수 있을까 통증이 오면 부처님께 가서 절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의사의 진통제와 처방전을 기다리게 됩니다.

제가 수술실 입실 전 부처님께 기도하기를 “부처님, 제가 만약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더 좋은 인연이면 스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못 다한 것이 있으면 다음 생에 하겠습니다. 가없다고 여기서서 한번 살려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는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당시 혼수상태로 있을 때 시달림 하는 스님의 염불 소리를 두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돌아온 후 의사선생님께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가 물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설사 염불을 한다고 해도 중환자실까지 들릴 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퇴원 후, 평소 알던 스님께 연락을 취해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스님께서 오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그분은 그때에 인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염불하는 염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좋은 생각을 갖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서도 염력이 전해집니다.

큰 물통을 갖다놓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물통을 바라보면 물에도 염력이 생겨 부드러워지고 성나고 분노한 마음으로 물을 바라보았을 때 사진을 찍으면 물결의 거센 출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물에도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 느낌을 나타냅니다. 평상시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름답게 보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갖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포교사님들이 불교를 배워서 이리 좋은 것을 나 혼자 알기보다 주위 분들과 함께 수행하고 불교문화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 경기불교문화원은 스님도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포교사님들이 불교, 문화강좌를 운영하며 이끌어 간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불교의 교리를 많이 아는 것 보다 부처님을 향한 나의 행동, 나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 포교사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이 화 정

생심검찰
감지탕

대표 **선 은 숙**

남문 팔달로 1가
TEL.031)244-0777

가족은 부처님!



조계종 포교사/ 불교미술의이해 강사

권 중 서

H.P 011-9279-1401



후원해주신
분들

2003년 후원회비

■ 2003년 12월 20일 후원자의 밤에 후원금 보내주신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승하	100,000	김대성	50,000	김완기	50,000	장덕기	50,000
권중서	100,000	심우성	50,000	(사)대한불교청년회		박노훈	50,000
최우석	50,000	지병호	50,000		30,000		
구광국	70,000	조권형	50,000	대화건재	100,000		

■ 2003년 11월 12월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구광국	20,000	이영옥	30,000	지병호	100,000	양준영	10,000
이상국	20,000	최귀미	40,000	김은희	20,000	김정숙	10,000
강영진	40,000	김미월	20,000	장용집	5,000	안영찬	20,000
권승하	100,000	이상범	20,000	장옥훈	20,000	방옥화	10,000
윤영무	20,000	최정자	20,000	김의순	20,000	전종환	300,000
조창윤	20,000	김상용	20,000	정무근	20,000	박청용	100,000
김기현	20,000	이옥자	70,000	김준옥	20,000	조권형	50,000
오동섭	10,000	현병국	50,000	박미영	20,000	어윤식	30,000
조인숙	60,000	김완기	40,000	김향숙	10,000	차용희	20,000
강재수	20,000	이임성	20,000	박경아	10,000	윤기수	60,000
이대곤	20,000	홍인숙	20,000	김순자	20,000	최종선	40,000
주영월	20,000	김영희	20,000	송미애	20,000	이기순	20,000
김말수	20,000	이형숙	20,000	김대성	50,000	최우석	10,000

■ 2003년 11월 12월 이사회비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명길	100,000	이화순	100,000	이선우	20,000	염규용	100,000
권중서	100,000	이기원	100,000	진철희	100,000		

♣ 여러분의 뜨거운 정성이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누락되신 분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불행과 행복
다른사람이 만든 것 아니네
- 법구경

위빠사나 수행으로 성불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강사 : 황영채 12주(60,000원)

재미있는 역학교실(2월개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 보현 진열(철학박사)
기간 : 12주(100,000원)



사랑방

근·하·신·년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아홉번째, 열번째) 열린 법회 개최

날이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초청(아홉번째, 열번째) 열린 법회가 지난해 11월15일 "남북통일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백련의 대가이신 인취사 해민스님의 열린법회가 있었으며, 12월19일에 한 해를 마감하는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란 주제로 불암사 일면스님의 송년 법회가 경불원 대법당에서 여법하게 개최되었습니다.



● 사찰환경 답사(11월, 12월)개최

불교의 산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찰환경답사가 충남 갑사, 신원사, 마곡사(11월), 경남산청 겹외사, 함양 벽송사(12월)에 각기 현지에 있는 민속 문화와 음식등과 어우러져 개최되었습니다.



● 후원자의 밤

경기불교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게 진심어린 애정을 보내 주신 여러 문화원 가족들을 모시고 한 해를 보내는 후원자의 밤이란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2004년 1월 행사 안내

■ 백인에게 듣는다(열한번째)

일운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육바라밀 실천 수행
- 일시: 불기2548(2004)년 1월 17일 오후 3시
- 장소: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

■ 경기불교문화원 동정

- 포교사단 부단장 피선 (진철희 / 경기불교문화원장)
- 원장을 단장으로 스리랑카 10박11일의 성지순례를 열여섯분이 1월2일 출발

■ 삼보사찰순례

- 일시 : 2004년 1월 31일(토)정오 12시~ 2월 1일 (1박2일)
- 장소 : 경남 양산 통도사, 경남 합천 해인사, 전남 순천 송광사
- 출발지 : 수원포교당 입구 매향다리 앞 정오12시
- 동참금 : 5만원(숙식비/여행자보험료/간식/사찰입장료 포함)

※1월 27일까지 선착순 40명

- 접수 : 경기불교문화원(사무국)



청소년 문화쉼터 운영

자녀를 불교문화원으로 보내보십시오.
매주 금요일 : 무료 영화 상영

불교미술의 이해 (2월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강사 : 조계종 포교사 권중서
기간 : 3개월과정(60,000원)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교강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 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2월개강
	노래교실	김혜은 최종선	20명	3개월 60,000원	찬불가 및 노래부르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위빠사나	황영채	20명	3개월 60,000원	위빠사나 수행법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월개강
	기초교리	전문법사	4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2월개강
	불교미술의 교실	권중서	20명	3개월 60,000원	불상, 석탑, 탕화, 범종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2월개강
	경전강좌	수산스님	30명	3개월 60,000원	금강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월개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교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월개강
문화강좌	발건강 관리법	안옥순	20명	3개월 100,000원	발건강 관리와 족압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월개강
	요가반	최두남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30분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신규 수시
	다도반	윤영예	20명	5개월 60,000원	생활차예절법 다경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5개월 과정 수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3개월 10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2월개강
	중국어회화	이영옥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중국어회화	매주 월/목요일 오후 2시	2월개강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영어 회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수시
	경락반	고칠성	20명	3개월 6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신규(초급)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사찰 환경답사	매월 첫째주 또는 셋째주 일요일 오전 7시	중식/간식/ 보험료/ 입장료포함
	청소년 문화 쉼터반	이영옥	20명	3개월 60,000원	중국어 회화	매주 월, 목 오후 1시	초·중등생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영어 회화	매주 화, 수 오후 4시 30분	"
		홍낙기	20명	무료	영화 관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본 강좌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료 2개월 분납가능)

■회원가입안내

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부처님전에 회원등을 밝혀드리고, 생일축전과 기념품을 드리며 문화원 자체 강좌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문화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재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